

나주시, 농수산물식품 100만 달러 수출 유럽시장 공략

지역 배·쌀·김 등 10개 품목
“해외 기반 판로 개척 최선”

전라남도 나주시가 100만달러 규모의 지역 특산품인 배, 쌀, 김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프랑스 현지 유통업체와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이스마트 루브르점에서 현지 유통업체인 에이스푸드(ACE FOOD SAS)와 농수산물식품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수출협약을 체결한 에이스푸드(ACE FOOD SAS)는 파리 내 에이스마트 5개소를 직영하는 한국식품 전문 유통업체로 파리 시내 한식당과 프랑스 전역 아시아 식료품점에도 한국식품을 유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이상호 에이스푸드 대표, 김기철 전

라남도 유럽사무소장, 남상희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파리지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나주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홍보 행사에서는 배, 배주스, 쌀, 김, 잡곡, 누룽지, 누룽지집, 과일집, 곤약젤리 등 다양한 고품질 농수산물식품을 선보였다.

나주배 시식은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배주스, 나주쌀로 만든 누룽지집 등 우수 제품 증정을 통해 현지 소비자와의 만남을 확대하는 기회가 마련됐고 제품 경쟁력과 시장 반응을 확인했다.

이번 행사로 나주시 농수산물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 반응과 시장의 가능성을 살핀 뒤 호응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하반기 2차 현지 판촉 행사 추진 예정으로 본격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수출협약은



지난 23일 나주시가 프랑스 파리 유통업체인 에이스푸드와 100만달러 규모 농수산물식품 수출 협약을 맺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시장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주 농수산물식품의 지속적인 해외 판로 개척과 안정적인 수출 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 호주, 프랑스를 비롯한 8개 국가와 총 576억원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농수산물식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6월 여름 맛보기’ 할인 이벤트
화순군직영쇼핑몰, 27일까지
최대 40%… 신규 가입 쿠폰도

전라남도 화순군은 올해 첫 여름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6월 여름 맛보기’ 할인 이벤트를 5일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 제철을 맞은 신선한 농산물을 비롯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게 화순군의 설명이다.

행사 기간에 모든 농특산물은 20%, 상생 마켓 생활용품 등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쿠폰은 회원당 각각 3매씩 지급하며 자체 할인을 진행하는 일부 품목에 쿠폰을 적용하면 최대 40%까지 파격적인 할인이 적용된다. 여기에 선착순 1000명에게만 지급되는 신규 가입 쿠폰을 적용하면 3000원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팜 누리집(<https://www.hwasunfarm.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행사가 제철 맞은 화순군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폭염 대응 축산농가 종합대책 운영
나주시, 1:1 담당제·합동점검 등

전라남도 나주시가 축산 폭염 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

나주시는 여름철 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축산분야 폭염 예방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폭염일수는 평년보다 많고 시작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축 폐사, 생산성 저하 등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대책반을 운영하면서 평시에는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해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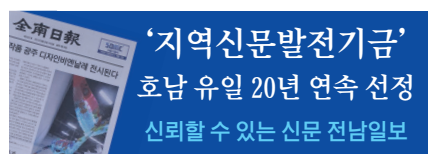
나주시는 여름철 재해 취약 축산농가 28곳을 사전에 점검하고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337농가에 1억8200만원 규모로 공급을 완료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3억6700만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1500만원), 환풍기 및 쿨링패드 설치 등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7000만원)을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축사 화재에 취약한 가금농장 4곳을 대상으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공무원과 축산농가 간 1:1 매칭을 통해 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폭염특보 발생 시 긴급 문자 발송과 같은 신속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여름 폭염 재해에 대비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폭염 시 축사 지붕 단열재 부착, 송풍팬 가동, 지붕 물 뿌리기 등으로 온도를 낮춰 가축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곡성군죽곡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원들이 지난 16~20일 관내 취약계층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죽곡면우리동네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생활불편개선 활동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불편개선 활동을 펼쳤다.

24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개보수 작업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수급자 등 총 5가

구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됐으며 복지기동대원, 직원 등 10여명이 개선활동에 참여했다.

죽곡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들은 5일에 걸쳐 오래된 창호를 깨끗한 창호로 교체하고 급방 부서질 것 같은 현관 나무 데크를 철거 후 튼튼한 데크로 설치했다.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 등 안전을 위해 계단 안전 손잡이도 설치했다.

이강봉 복지기동대장은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위기를 겪는 가구가 있으면 즉시 출동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군, 청년농업인 맞춤형 현장 교육

전라남도 담양군이 지난 19일 담양군 농업인대학 청년농업인과정 교육생 24명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현장 교육을 추진했다.

24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역의 비슷한 또래의 청년농업인의 영농 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시설하우스에 대한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년농장 4개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무정면의 권노훈 농가는 수경재배 딸기 연동하우스 운영 사례, 월산면의 박소

정 농가는 꽃차용 메리골드 재배 하우스를 소개했다.

대전면 진상현 농가는 멜론 재배 단동 하우스, 수북면 김현배 농가는 백향과(패션프루트) 재배 시설하우스를 공개하며 각각의 시행착오의 어려웠던 점과 시설하우스 운영 노하우, 농산물 판로 확보 전략을 공유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교육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번 현장 교육이 청년농업인들의 진로 설정과 창농



지난 19일 담양군농업기술센터가 담양군농업인대학 청년농업인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현장 교육을 펼쳤다.

담양군 제공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전라남도 화순군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장마철에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폐수 무단 방류 △가축 분뇨 무단배출 △고질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배출사업장 △배출·방지 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필요시 시료 채취·분석을 통하여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및 사법 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특별감시 활동을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1단계는 사업장 자체 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오염 행위 예방 사전홍보 및 계도문을 발송하며 2단계는 사업장 특별감시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시설이 파손돼 정상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시설 복구 및 공정 진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기술지원 할 계획이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하절기 휴가철과 장마철은 수질관리가 취약한 시기인 만큼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